

알앤엘바이오, 개 복제기술 신개발

알앤엘바이오(대표 라정찬)가 기존의 개 복제 방식과 다른 새로운 개 복제기술을 개발해 국내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알앤엘바이오는 개 복제에 대한 특허기술이 1996년 양 복제에 사용된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동물 생산기술(돌리 특허)이나 서울대학교의 개 복제 기술(스너피 특허)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.

그러나 새로운 특허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.

라정찬 대표는 “개 복제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논쟁을 일축할 수 있는 진일보한 기술”이라며 “아직 특허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복제기술을 설명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09/01/07>